

일자리전담반, 청년 일자리대책 마련 위한 과제 논의

- 신규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마련·발표
- 고용 부진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해 대응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23일(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①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②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했다.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및 고용여건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한다.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신속 집행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AI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적극 연계하는 방안,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 등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업종별로도 일자리 관련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논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sin20219@korea.kr)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jwpark416@korea.kr)
		담당자	사무관	최종원 (jwchoi0622@korea.kr)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담당자	서기관	김철수 (xel loss@korea.kr)